

madame FIGARO

1달 휘가로 8월호

가 5,800원

전 독자에게 드립니다!

'빈폴 올므 VIP 상품권'

(본지 64~65페이지 사이 빈폴 올므 광고 참조)
www.madamefigaro.co.kr을 클릭하시면
상품권의 이용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승철, 그를 기억하라!

달의 쇼핑 아이템 | 남자 손목시계, 넥타이, 수분크림

타일 지켜주는 헤어 필수품

강을 생각하는 음식 트렌드

원된 커플 룩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

가가 그린 와인 라벨

기 마스크라 체험기

러 다이아몬드, 이런 매력이 있다!

Men in Beauty

4인4색의 리얼 뷰티 라이

아테네 올림픽 조직위원

기아나 앙젤로플로

아집트, 튀니지, 피지, 발리 명 골프 클럽

두바이에서 꽃피는 파리 최고의 패션

'일상'을 찾아 떠난 아테네 여행 가이드

'얼리 어댑터'들이 최근 구입한 전자제품은

'언니', '오빠'에 관한 고

Madame's Men

새로운 남자의 공식

소리의 섬세함

티볼리(Tivoli) 라디오. 작고 단단하고 아무렇게 생긴, 그러나 복잡하고 현란하고 거대하지 않은 이 라디오는 헨리 크로스의 작품이다. 티볼리 라디오를 생산하는 티볼리 오디오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모델 원 테이블 라디오'가 탄생하기까지는 근 4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 MIT 공대생이었던 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실황연주가 완벽히 재생되기를 원하는 동료들을 위해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했던 크로스. 이후 그는 꾸준한 소리의 전달, 즉 스피커와 디자인에 매달렸다. 40여 종에 달하는 가정용 스피커, 홈시어터, 컴퓨터 스피커 등을 제작하는 케임브리지사운드웍스에서 30년간 함께 일했던, 오디오 산업분야의 리더 격인 톰 디베스토는 헨리 크로스의 라디오가 영웅이라서 이 제품의 판매를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할 정도이니, 하지만 크로스는 이미 2년 전에 모델 원 테이블 라디오의 아버지란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20년 전 모노로 녹음된 음악이 티볼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순간 스테레오보다도 더 깊은 음색과 감동으로 가슴을 울려대니 이 시대에 이보다 더 부러워할 소리의 명기(名器)가 따로 없을 듯하다. www.tivoliaudio.co.kr



나무의 투박함

농트롬(Nortron)사가 설립된 것은 1928년. 하지만 회사가 동지들 큰 프랑스의 농트롬 시 그리고 더 크게는, 칠 생산량이 많았던 페리고르 지방에서의 칼의 역사는 기원전까지도 올라간다. 1300년에 이미 농트롬의 칼을 시로 표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시인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나, 세월이 흐른 만큼 번영을까 싶지만 손으로 만드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나무의 투박한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밑면이 손으로 쥐고, 끝로 지지 남긴 V 자 표시는 장인의 손길을 물론 느끼게 한다.

Fax 33 05 5356 2531.



ESPRIT (Tibook)

가족의 부드러움

1895년, 파리에 자리를 잡고 당시에 그러했듯이 맞춤 구두만을 만들던 알렉산드르 베를루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그 이름을 널리 알렸고, 그의 아들은 당시의 만다들과 인목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술적인 오브제로 인식되도록 했다. 또 그의 아들은 러시아인 프레타 포르테 슈츠를 제안함으로써 세계로 그 이름을 넓혀갔다. 엄밀히 말하면 3대에, 아들에서 아들로 전해지던 베를루티(Berluti)는, 4번째의 수장이 여자로 바뀌면서 1백1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맥을 확고히 이어가고 있다. 1968년 파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던 그때부터 새로운 고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브 생 로랑, 칼 라거펠트, 엔디 워홀, 로만 폴란스키, 지크 라캉, 프랑수와 트뤼포... 사업을 아깝고 나가던 율가 베를루티는 그때부터 상상치 못했던 색상의 구두를 창조하면서 '영혼을 간직하는 구두'를 탄생시켰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두 업계의 여성 리더인 그녀는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는 구두를 창조하고자 한다. www.berluti.com



메탈의 차가움

프랑스 중남부의 작은 마을 라기올. 이곳에서 만들어졌으므로 단순히 라기올이라고 이름붙여진 칼들. 19세기 초반에 시골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칼이 1백년의 역사를 내리오더니 말 그대로 라기올(Laguiole)이란 한 마디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명품(奢侈品)이 되었다. 1840년에 양치기의 필요에 의해서 송곳을, 1880년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이들의 요청에 의해 코르크스크류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에는 점점 까다로워지는 부르주아의 요구에 맞추어 상아로 손잡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1987년 부르주 드 라기올(Forge de Laguiole)이 탄생한 것은 흠어져버릴 마을의 전통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며 현대적인 창조성을 부여하자는 의도에서였다. 1987년 필립 스탁이 라기올 사옥을 디자인하고 그 지붕 위에 18미터의 칼날을 기념물로 세웠다. 이듬해 그는 칼을 디자인했고, 2004년 현재 그 칼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디자인 작품으로 소장되어 있다. www.forge-de-laguiole.com

